

자연재해 신속 대응 시스템 가동

심민 임실군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배수시설 등 철저 점검 지시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풀가동한다.

군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방과 부서별 대응 점검, 수방 자체 확보, 폭염 저감 시설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대응은 연일 여름철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심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뒷받침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난 대응 간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상습 침수 구역, 산사태 우려 지역,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마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 활동과 상황 관리를 병행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민주관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우수관 등 배수시설 및 펌프장 정비 등 시설·장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사전 점검과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풀가동한다.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8일에는 이진관 부군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주민복지과, 산림복지과, 농업축산과, 건설과, 보건사업과 등 11개 협업부서들이 참여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부서별 안전관리 방안과 응급 복구 장비·인력 확보, 주민 대피계획 수립 등 분야별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를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와 현장 대응체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은 또한 장마철 군민들이 신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재해 문자 발송과 마을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주민 행동 요령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찾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참전용사 숭고한 희생 기려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

순창군은 25일 순창읍 잠기터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은 6·25 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참



전유공자와 유족, 보존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애국가 제창, 묵념에 이어, 4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화사, 기념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제 후손들이 우리의 책무"라며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의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동계면 문화체육센터 준공

순창군 동계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계면 문화체육센터가 마침내 완공됐다.

25일, 동계면 현포리 520번지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읍 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함께해 새로운 지역 거점 공간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

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내부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동계면 문화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염원의 결실로, 체육 시설과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동계면에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최영일 군수는 기념사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행정의 협력,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동계면 문



화체육센터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곳이 건강한 여가 생활과 문화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의료원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남원시-남원의료원 '맞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남원시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의료원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의료원은 2029년까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영양지원 및 육아 정보 제공 등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개원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남원시 고곡동 20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며,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맘카페, 프로그래밍실,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

심으로 인근 분만 산부인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을 통해 임신-출산-산후 조리-영양아 진료까지 이어지는 공공 모자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또한, 시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리원 입소 전후 연속성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신생아 및 영유아 진료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최정식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만 의료기관과 어린이 진료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출산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위 활동 시작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삼계면장을 만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와 남서권 개폐소(변전소)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과 행정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임실군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박사골 문화복지마당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흠 특위위원장(사직)은 집회에서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는 임실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과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군은 하루 빨리 군민의 곁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라"고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함께 집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도 "임실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의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임실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가 임실군과 순창군으로 압축되자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해 특위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 영농참여와 농업인들 유대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40일 기준의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여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부식비 상향 조정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첫째 11개 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누적 289개 마을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2개 마을 102백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당 320만 원씩 지원하여 추진 중이다.

최정식 시장장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 위원 5명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근로자 측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2분기 현업사업장 안전과 보건 분야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였고, 순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건과 작년 산업재해를 통해·발생 현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